

# 李白 詩의 瀛洲

郭 利 夫\*

〈차 례〉

- I. 序 論
- II. 本 論
  - 1. 李白의 徐市에 관한 詩
  - 2. 李白의 瀛洲에 관한 詩들
- III. 結 論

## I. 序 論

李白(701-762)은 출생도 전설적이니 모친이 太白(金星)이 가슴 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은 白, 字를 太白이라 했고 自號는 清蓮居士라 했다. 李白은 천재적인 자질을 가지고 청소년기에 부단한 학습으로 성격은 저속하지 않고 고결했고, 음주를 너무 좋아해 “酒仙”, 詩才가 仙人과 같다고 “詩仙”, 사람들은 “酒仙 혹은 謫仙人” 이라고 칭했다.

唐代의 시단은 밤하늘의 못별처럼 詩人이 약 2200여 명으로 많아서 “唐詩”라는 문학 장르에서 浪漫主義시인 李白은 詩仙이고, 現實主義 시인 杜甫는 詩聖이라고 했는데, 杜甫와 李白과의 교제를 통해서 “李白은 술 한말에 시 백편을 짓는다. 長安거리 술집에서 잠을 자다가 천자가 불러도 배에 아니 오르곤 스스로 칭하기를 臣은 酒中仙입니다.”<sup>1)</sup>라고 읊어 李白의 酒樓에서의 飲酒樣態와 취후의 高歌와 豪放性을 묘사했다.

\* 濟州大學校 中文科 教授

1) 杜甫 〈飲中八仙歌〉 “李白一斗詩百篇, 長安市上酒家眠, 天子呼來不上船, 自稱臣是酒中仙.”

李白이 흠모해 음영한 瀛洲 즉 濟州는 원래 탐라국(BC2337~AD 938)이었으며 그 이전에 瀛洲, 壬牟라는 명칭이 있고 高麗朝 忠烈王 21年 (1295年) 4월에 耽羅가 濟州로 개칭되었다. 그러나 지금도 옛 이름인 瀛洲와 耽羅로 별칭 혹은 속칭으로 부르며 각종 상사, 문집 등의 명칭으로 현재까지 민간에 쓰고 있다. 그것은 古代에 대한 향수인지 우아한 명칭인지는 우리들 濟州人들의 관점에서 瀛洲를 연구해 보아야 할 것이고, 더불어 徐市過此혹은 徐市過之가 정방 폭포 석벽에 刻字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지만 그 마애각은 찾지 못하고, 그 암벽위에 2003년 9월 26일 서북 전시관이 개관되었으나 관람객이 많지 않다고 한다. 不老長生의 약초를 캐러 왔었던 서불에 관해 더욱 활발한 연구가 진행돼 제주와 진나라 시대의 역사적 사실과 전설을 많이 공유하는 동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도를 瀛洲로 부르거나 漢拏山을 瀛洲山으로 표현한 기록 등은 여러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런 기록이나 표현은 그 배경이 대체로 秦漢시대를 전후한 중국의 신선사상과 관계있음을 알 수 있다.<sup>2)</sup> 즉 秦代의 始皇帝와 漢代의 武帝가 주도한 思想界의 흐름이라 할 수 있고 백성들의 소박한 念願과 理想에 대한 토템(totem)이라 하겠다.

예로부터 瀛洲山 즉 漢拏山은 삼신산(三神山)으로 불리며 蓬萊山, 方丈山과 더불어 신령한 한민족의 3대 영산(靈山)으로 여겨왔다. 제주도는 육지에서 약 천여 리를 사이에 두고 남쪽 바다에 돌기한 국내 최대의 섬이며, 동서가 약 400리, 남북이 약 200리로 지형이 동그스름하고 길어서 마치 그 형상이 달걀과 같다. 한라산맥은 높고 낮고 일어나고 엎드린 듯한 고저기복(高低起伏)이 출중하여 기화요초가 많은 풍경이 아름다운 자연의 보고이다. 한반도의 두 번째로 높은 1950m의 漢拏山은 화산폭발에 의해 이루어진 火山島의 신비한 영산이며, 산정(山頂)의 높고 빼어남이 푸른 하늘을 만지는 듯하여 마치 은하(銀河)또는 은한(銀漢)을 끌어당길만한 높은 산이기에 한라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sup>3)</sup>

우선 중국인들이 보는 瀛洲를 중국어 대사전에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전설에서의 仙山이다. 발해의 동쪽 수역 만리나 되는지 가늠할 수 없는 곳에 五山이 있으니…… 셋째는 방호, 넷째는 瀛洲, 다섯째는 蓬萊라고 한다. ……거주하는 사람은 모두 선인이나 성인의 후손이다.” “齊나라 사람 徐市등이 상서하여 바다에

2) 洪淳晩 《濟州島史研究 第二輯》〈徐福集團의 濟州渡來說〉, 濟州島史研究會, 1992. p.44

3) 신영대 《耽羅文化》 第24號 〈제주문화속의 오름〉 濟州大·耽羅文化研究所, 2004년, pp.180~181.

三神山이 있으니, 蓬萊, 方丈, 瀛洲하고 말하는데, 그 곳에 선인들이 살고 있다.”<sup>4)</sup>

三神山은 전설에 동해 바다에 선인들이 거주하는 산을 일컫는데, 즉 蓬萊, 方丈, 瀛洲라고 하는데 三神洲라고도 한다.<sup>5)</sup>

“三島는 전설중의 蓬萊, 方丈, 瀛洲이며 해상의 세 자리의 仙山이다. 또 선경을 말하기도 한다.”<sup>6)</sup>라고 기재되어 있다.

十洲는 “도교에서 말하는 大海중의 신선이 사는 열 곳의 名山 景勝地를 말하는 데 선경이라고도 한다. <海內十洲記>: “漢 武帝는 王母가 말하는 東方의 큰 바다 가운데에는 租洲, 瀛洲, 玄洲, 炎洲, 長洲, 元洲, 流洲, 生洲, 鳳麟洲, 聚窟洲가 있다는 말을 이미 들었었다. 이 十洲에는 희귀한 절경이 있는데 사람의 발자취가 있다. 일반적으로 선경을 지칭하는데 十洲三島 혹은 三島十洲라고도 한다.”<sup>7)</sup>

三神山에 대한 우리의 국어 대사전을 보면 “三神山은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蓬萊山, 方丈山, 瀛洲山의 세산.” 동해에 있다하며, 秦始皇과 漢武帝가 동남동녀 수 천명을 보내어, 不老不死약을 구하였다는 이야기가 있음. 우리나라의 金剛山과 智異山과 漢拏山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함<sup>8)</sup> 瀛洲는 “1. 三神山の 하나 2. 秦始皇과 漢武帝가 不死藥을 구하러 사신을 보냈다는 가상적인 仙境, 瀛洲山”<sup>9)</sup>이라고 했다.

瀛洲에 대해서 중국과 한국에서 대체적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복일행이 제주도를 찾아온 것은 불로초를 얻으려고 한 목적 때문이었다고 전한다. 불로초 외에도 불사약이니 하여 불려온 이 약초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통일돼 있지는 않다. 최부(崔溥) (1454-1504)의 <耽羅詩>를 보면 불사약에 관한 시를 볼 수 있는데 그의 시를 보면 제주도는 오만가지 약초가 가득한 섬으로 표현되고 있다. “나는 온갖 선약이 이 땅에 있는 것을 알았네, 不老를 처방할 약도 분명히 그 안에 있겠지……(乃知仙藥 百千般, 箇裏分明 有煉丹……)”

4) 羅竹風 <漢語大詞典六卷> 北京, 漢語大詞典 出版社, p.209 : “傳說中的仙山. <列子·湯問> : 渤海之東, 不知幾億萬里…其中有五山, …三日, 方壺 四曰瀛洲, 五日蓬萊…所居之人, 皆仙聖之種. <史記·秦始皇本紀> : “齊人徐市等上書, 言海中有三神山, 名蓬萊, 方丈, 瀛洲, 僊人居之.”

5) 上揚書 一卷 p.219 : “傳說東海中仙人所居之山, 卽蓬萊, 方丈, 瀛洲, 僊人居之.”

6) 上揚書 一卷, p.224 : “指傳說中的蓬萊, 方丈, 瀛洲三座海山仙山, 亦指仙境.”

7) 上揚書 一卷, p.823~824 : “道教稱大海中神仙居住的十處名山勝境, 亦指仙境. <海內十洲記> : “漢武帝卽聞王母說八方巨海之中有祖洲, 瀛洲, 玄洲, 炎洲, 長洲, 元洲, 流洲, 生洲, 鳳麟洲, 聚窟洲. 有此十洲, 乃人跡所稀絕處”

8) 이희승 <국어 대사전> 서울, 민중서림, p.1821

9) 上揚書 p.2559

라고 하여 徐市이 찾던 불로초가 瀛洲에 있음을 읊었다.

崔溥는 조선시대 초기인 15세기에 살았던 학자로 1487년 제주도에 推刷敬差官이 되어 내도하였다. 이때 부친상을 당해 내도 70여일 만에 떠났는데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 漂流, 중국 浙江省 寧波府에 도착하였다. 그 뒤 그는 수만리 중국 대륙을 횡단, 반년 만에 고국에 돌아왔으며 이때의 漂流記를 써 더욱 유명해진 사람이다.<sup>10)</sup>

蓬萊, 方丈의 신선세계는 다른 논문이 필요하며, 본 論文에서는 唐代的 낭만주의 최고 詩人인 李白의 작품에서 徐市의 不老草에 관한 詩와 三神山의 하나인 瀛洲를 理想郷으로 읊었던 바를 살피고 徐市과 瀛洲에 대한 詩句를 고찰하고 분석하는 試論으로 삼고자 할 뿐이다.

## II. 本 論

### 1. 李白의 徐市에 관한 詩

李白의 사상은 대단히 복잡다단해 儒釋(佛).道 三教외에 縱橫家 등 각종 사상도 한 몸에 가졌고 擊劍과 任俠 그리고 “文”을 버리고 “武”로 나가야 한다고 했고, 또 인생은 일장춘몽이니 때 맞춰 行樂하고 즐겨야 한다는 허무감을 선양하기도 했다.<sup>11)</sup>

唐帝國 歷代 帝王 중 老子와 道教를 가장 독실하게 신봉한 인물은 唐玄宗이었는데, 그는 崇玄學을 세워 道教를 장려 하였다. 당시의 唐代 道教는 唐帝國의 護國宗教로써 國教化되다시피 하였는데, 李白은 道教의 極盛期인 唐代에 살았고, 또 唐 歷代 帝王 중 道教의 神仙思想을 가장 信奉했던 玄宗代에 활동한 인물이니, 唐代的 士人 모두에게 生活 그 自體였던, 道教를 숭배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李白도 玄宗처럼 신선사상에 심취되어 三神山과 徐市 등을 읊기도 하였다.

李白의 千여수의 시에서 三神山에 관한 시는 많지만, 徐市에 관한 시는 단一首 밖에 없고 詩題가 아닌 《古風·三首》의 詩句에서 徐市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徐市(서불)의 이름은 일명 徐福(서복)이라고도 하는데 고향 徐阜(서부)와 발음이 같아 현대 중국어 발음으로 읽으면 모두 「xu fu」로 읽는다. 서불은 본래 齊나

10) 洪淳晩 《徐福集團과 濟州島》 제주 문화원 2002년, pp.70~73 참고

11) 安旗 《李白全集編年注譯》, 成都, 巴蜀書社, 1990년, p.7 참고

라의 方士 혹은 術士로, 不死藥을 구하러 동해로 瀛洲를 향해 가서 돌아오지 않아서, 秦始皇의 “焚書坑儒”의 간접적인 원인 제공자라고도 할 수 있다.

焚書坑儒란 秦始皇이 즉위 34년에 학자들의 정치 비평을 금하기 위해 민간의 서적을 모아서 불살라 버리고 다음에 儒生들을 陝西省 서쪽 臨東縣 동남의 驪山의 구덩이에 묻어 죽인 일을 말한다. “《秦史》의 전문가인 馬非百선생은 그의 《秦始皇大畧》에서 구덩이에 묻혀 죽은 자는 대부분이 方士이며 소수의 유생은 連坐된 자들이다. 유생은 주요 대상자가 아니며 秦始皇도 儒生을 결코 배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考證했다.”<sup>12)</sup>

徐市에 대해서 중국학자들은 《史書》등에 단편적인 기록이 있지만 그의 존재를 전설상의 인물로만 취급해 20세기 중엽까지만 해도 별로 알려진 것이 없었다. 그런데 1982년 나기상(羅其湘)의 《徐福考論》에서 徐福의 고향은 江蘇省 連雲港市 贛榆縣 金山鄉 徐阜村이고 그를 一世 시조로 하는 草坪徐氏宗譜등 서북이 등재된 종보만 해도 56종이나 나타났다. 이 종보에는 그가 진시황을 위해서 不老長生の 선약을 찾아 떠났다는 기록도 나오고 있다.<sup>13)</sup> 徐市의 고향으로 또 琅琊(今, 山東省 較南市)<sup>14)</sup>라고도 하여 두 지역에 모두 徐福의 石像이 세워져 있다. 濟州島 鄉土 史學者이며 濟州 徐福學會 會長이신 洪淳晩의 力著인 《徐福集團과 濟州島》에 북경 金臺飯店에서 2002년 6월 20일에 개최된 徐福 國際 研討會(서북 국제 학술 심포지움)에 참석하셨다가 그 두 곳을 방문해 찍은 사진이 畫報로 각각 실려 있기도 하니 두지역이 분쟁중이다.

〈古風 五十九首〉其三

秦皇掃六合	진시황이 천하를 일소하고 통일해
虎視何雄哉	호랑이의 눈빛 얼마나 위엄찼던가
飛劍決浮雲	名劍으로 뜬 구름 같은 동난을 평정해
諸侯盡西來	제후들 모두 항복해 서쪽 秦으로 왔네
明斷自天啓始	皇帝의 현명한 판단은 하늘의 뜻이니
大略駕群才	큰 계략과 재능있는 인재들 신하들 모였네
收兵鑄金人	병기를 거둬들여 금속의 인형을 만들어

12) 呂錫琛, 《道家, 方士與王朝政治》 長沙, 湖南出版社, 1991年, p.74~75 참고

13) 洪淳晩 《徐福集團과 濟州島》 前掲書 pp.85~86 참고

14) 《中國 歷史 三百題》 上海出版社編, 1989, p.114 참고

函谷正東開	함곡관을 활짝 여니 동서의 왕래 자유롭네
銘公會稽嶺	천하를 순시하며 회계산에 공적비를 세워
騁望琅琊臺	琅琊臺에 올라 동해를 멀리 보았네
刑徒七十萬	칠십만의 죄수들 동원한 큰 공사
起土驪山隈	여산의 기슭에 산능을 쌓기 시작했네
尙採不死藥	불사약을 얻고져 方士들 동해에 보내
茫然使心哀	넓고 멀어서 아득한 모양에 애처로웠네
連弩射海魚	바다의 해어들 향해 쇠뇌를 계속 쏘
長鯨正崔嵬	큰 고래는 높은 산처럼 우뚝 하다네
額鼻象五嶽	이마와 코는 커서 마치 五岳과 같았고
揚波噴雲雷	움직이니 큰 파도 구름 일고 우뢰 소리네
鬢鬣靑青天	큰 수염을 세우니 푸른 하늘 뒤덮어
何由覩蓬萊	어찌 작은 봉래산을 볼 수 있으리
徐市載秦女	徐福은 秦의 여자들을 태우고 가니
樓船幾時廻	타고 간 樓船은 언제 돌아오려나
但見三泉下	지금은 그저 三泉의 땅 아래 묻혀
金棺葬寒灰	金棺속에서 차디찬 재가 되었을 뿐

진시황은 천하를 통일하고서 평화를 기원하는 백성을 각종 부역장으로 내몰고 부역을 시켰고 자신은 長生不死하고져 徐市(일명 徐福)로 하여금 瀛洲에 가서不老草를 캐도록 명령을 내렸지만 끝내 귀환하지 않았다. 그래서 칠십만의 죄수들을 자기가 죽어 묻힐 王陵을 만드는 공사에 동원했으니 始皇帝의 矛盾性을 시인은 신랄히 비난했다.

秦의 始皇帝는 약 오백년간 난마 같은 春秋戰國時代를 마감해 천하를 기원전 221년에 통일하여 郡縣制를 채용해 중앙 집권을 강화했고 스스로 始皇帝라 칭했다. 천하의 제후들이 모두 항복해 서쪽 秦으로 모여 들었다. 始皇帝의 현명한 판단은 初心으로 하늘의 뜻을 따르려 했으니 재능 있는 인물들로 넘쳤다. 정치를 하는데 중앙집권제로 다시는 전쟁을 안 하려고 민간의 병기를 모두 회수해 금속의 인형을 제조했고, 엄중히 폐쇄되었던 函谷關을 개방해 人的, 物的으로 東西의 왕래를 자유롭게 했다. 始皇帝는 남방을 순행하며 會稽山 정상에 올라 천하를 통일한 업적으로 자신의 송덕비를 세웠고, 동쪽으로 가서 琅琊臺에 올라 동해를 멀리 바

라보았다. 그 송덕비를 始皇帝刻石이라 한다. 三神山에 가서 不老不死의 약초를 채취해 오겠다는 方士들의 건의에 따라서 徐市(徐福)이 선발되었다. 그러나 동해에는 수많은 海魚가 항로를 방해하니 갈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始皇帝는 일시에 많은 화살촉을 발사하는 큰 활을 쥐서 소탕토록 했지만 큰 고래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고래는 몸체가 큰 산만했고 이마나 코는 넓어 五岳과 같아 한번 움직여 헤엄치면 구름을 일으키듯 우리가 발생했다. 고래의 수염을 바짝 세우면 크게는 푸른 하늘을 뒤덮고 작게는 봉래산을 덮었다. 그러니 徐市이 수많은 동남동녀를 누선에 태우고 동해를 향해하여 신선세계인 삼신산에 무사히 가서 시황제가 기대하는 不死약 즉 불로초를 캐고 귀환할 수 있을지 궁금했다. 童男童女 각 三千名을 태우고 仙藥을 구하러 瀛洲를 향해 떠난 徐市은 끝내 돌아오지 않고, 황제의 不老長生の理想은 이에 좌절되었고 위풍이 당당한 始皇帝도 자연의 섭리대로 끝내는 붕어(崩御)하셨다. 시황제는 결국 銅製의 관에 입관되어 지하의 황천에 묻혀졌고 최후에는 티끌이 되어 버렸다. 듣기로는 仙人들이 불로초를 먹으면 長生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미신에 불과한 것이다.

인간의 이상은 不老, 不死, 長壽이지만, 그 염원은 이해하더라도 그것을 진실로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하면 불가능하며 始皇帝의 실례로 더욱 명백해진다. 그러니 이백은 玄宗황제도 神仙사상과 方士 徐市이 不老草의 미혹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다.

李白은 이 시를 통해서 그의 자유분방한 성격을 반영하듯 도가의 신선 사상에 애호하는 일면을 보여주고 있지만 현실주의 인생관을 다분히 내보이고 있다고도 하겠다. 始皇帝의 적극적인 지지하에 大船團을 이끌고 不老草를 캐러간 이후에 종적이 묘연한 徐市에 대해 李白의 內心은 그가 의도적으로 海外에 이민 혹은 亡命客의 首長으로 간주하고 崇仰했다. 그의 시에서 자주 徐市을 언급하면 봉건사회에서 배반자에 대한 찬양, 고무와 不忠으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해서 최소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문학적 수법이다. 始皇帝의 독재정치에 염증을 느낀 徐市이 과감히 亡命圖生을 행동으로 옮긴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李白은 三神山 중에서 瀛海의 瀛洲로 代替했다고 하겠다.

## 2. 李白의 瀛洲에 관한 詩들

李白은 회재불우의 시인으로 瀛洲를 신선세계의 으뜸으로 삼아 동경의 대상으

로 찬양하고 그 곳에서 생활하기를 위하여 三神山을 읊었는데 瀛洲를 위주로 한 시들을 보겠다.

1) 〈宮中行樂詞〉八首其八

水綠南薰殿	南薰殿의 물빛 아름다운 녹색이고
花紅北闕樓	北闕樓의 꽃들 붉게 피어 예쁘네
鶯歌聞太液	피꼬리 소리 太液의 연못에도 들려
鳳吹繞瀛洲	笙簧과 피리소리 영주에도 들려왔다.
素女鳴珠珮	女宮들은 玉珮로 큰소리 내며 놀고
天人弄綵毬	天人이라할 궁녀들 蹴鞠즐기네
今朝風日好	오늘 아침처럼 풍취가 좋다면
宜入未央遊	폐하도 응당 未央宮에 들어 놀리라

本詩에서의 瀛洲는 太液의 못 가운데 人工的으로 만들어진 三神山의 하나이다. 太液은 궁중에 있는 못의 명칭인데 長安古城의 서쪽, 建章宮의 북쪽 未央宮의 西쪽에 있다. 못의 면적은 16만㎡이고 蓬萊池라고도 하며 白居易는 〈長恨歌〉, 王維는 〈秋史〉에서 읊었을 정도로 유명하다.<sup>15)</sup> 이 太液에는 金石을 조각하여 온갖 물고기와 금수로 장식하여 별천지와 같은 분위기를 조성했다. 漢武帝 때 長安의 太液의 못을 모방하여 玄宗도 宮中에 太液의 못을 만들었다. 素女도 신선세계의 분위기를 강조하는 단어로서 대개 처녀를 말하지만 여기서는 後宮에서 봉사하는 女宮을 말하는데 仙境인 瀛洲가 있어 궁녀들이 제기차기 놀이를 하니 仙女인 듯 착각하게 했다고 하여 더욱 신비한 느낌을 주고 있다. 영주의 분위기를 한껏 살려주는 구절을 다시 보면, 남훈전 앞의 녹색의 물은 지극히 아름답고 북궐루의 온갖 기화요초들은 활짝 피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다. 그리고 피꼬리의 아름다운 소리와笙簧과 피리소리가 조화를 이뤄 좋은 주위 환경이 되었다라고 됐는데 이 모든 것이 瀛洲를 수식하는 장식물이며 핵심은 신선세계인 瀛洲이다.

開元之治의 名皇帝로 정무에는 소홀하고 女色과 音色에만 몰입한 玄宗 李隆基의 宮中에서 行樂을 묘사했으니 開元年間的 盛唐 최고의 절정기는 서서히 하향

15) 王曙 《唐詩故事集》，海口，南海出版公司，1992년 p.44



곡선을 그리게 되었다. 玄宗은 神仙사상에 몰입해 미혹되었고 楊貴妃도 宮中에 들어올 때에 道觀의 道士였었다.

〈宮中行樂詞〉八首는 모두 다 美辭麗句로 쓰여진 佳作이며 언뜻 보기엔 李白이 현종의 行樂을 모두 찬미한 것 같지만 李白의 본래 의도는 무조건적으로 贊意를 표현 것은 아니고 詩語속엔 詩經의 諷諫정신이 숨어 있다.<sup>16)</sup>

이백은 人工의 瀛洲가 아닌 中國外地의 神仙世界인 東海의 瀛洲를 상상하고 동경한 것이라고 추정 하겠다.

2) 〈自巴同舟行經塘峽登巫山最高峰晚還題壁〉

江行幾千里  
海月十五圓  
始經瞿塘峽  
遂步巫山嶺  
巫山高不窮  
巴國盡所歷  
日邊攀垂蘿  
霞外倚穹石  
飛步凌絕頂  
極目無纖烟  
却顧失丹壑  
仰觀臨青天  
青天若可捫  
銀漢去安在  
望雲知蒼梧  
記水辨瀛海  
周遊孤光晚  
歷覽幽意多  
積雪照空谷

장강을 몇 천리나 배로 거슬러 올랐는지  
바다에 뜬 달이 열다섯 차례 바뀌었네  
처음 상류의 험한 구당협을 지나고  
드디어 무산 꼭대기까지 걸어 올랐네  
무산 높이는 끝이 없는 듯 높아  
내려 보니 巴國은 내가 지나온 땅  
아주 높은 곳에서 드리워진 덩굴 잡고  
하늘엔 노을 밖 산 위의 큰 바위에 올랐네  
나는 듯 걸어 최고 정상에 오르니  
한 조각구름도 없어 쾌청하네  
둘러보니 丹砂를 빚던 골짜기 잃어  
푸른 하늘을 쳐다보기만 하네  
하늘에 손을 뻗어 만질 수 있을 듯  
은하수가 어찌 온전히 존재할 수 있을까  
멀리 구름을 보니 蒼梧의 들녘이고  
강물을 보니 영주 바다를 알겠네  
유람하는데 해도 지려해 어두워  
여러 곳 보니 그윽한 회포도 많다네  
겹겹 쌓인 눈은 빈 골짜기를 비추고

16) 大野實之助 <李太白詩歌全解> 早田大學出版部, 1981, p.224 참고

悲風鳴森柯	비에의 바람은 나뭇가지를 울게 한다
歸途行欲曛	조망도 끝나 하산하는데 어두워져
佳趣尙未歇	좋은 경치에 느낌은 끝이 없다네
江寒早啼猿	강변 저녁 무렵은 추워 원숭이 우짖고
松暝已吐月	솔 숲 어두운 송림사이로 달이 뜨네
月色何悠悠	달빛은 어찌나 고요하고 유유한지
清猿響啾啾	원숭이는 맑게 쉬임 없이 울어
辭山不忍聽	산을 뜨는데 그 소리 하도 처량해도
揮策還孤舟	지팡이 짚고 배 타고 귀환해야하네

본시는 李白이 安史의 亂 때 肅宗 李亨과 永王 李璘 형제지간의 알력과 암투 시에 永王의 막료가 된 적이 있어 〈永王東巡歌〉 등으로 찬양 고무했다. 永王은 官軍에 의해 반란군으로 간주되어 피살되었고, 李白은 방랑객으로 가족과 離散의 슬픔에 젖었고, 연좌 죄로 夜郎으로 유배 갈 때의 암담한 심정을 巫山에 등정하고 읊은 것이다.

巴東은 지금의 湖北省 宜昌縣으로 李白은 유배인으로 유배지를 향해 쪽배를 타고 이곳에서 양자강을 15개월 동안 상류로 거슬러 올라갔다. 삼협의 하나인 구당협을 지나고 드디어 무협에 도착했고, 상륙하여 巫山の 정상 부근에서 덩굴이나 쑥대를 잡고 겨우 올랐다. 정상은 높고 높아 그가 지나온 땅과 양자강 물줄기를 다 볼 수 있고, 구름은 발아래 떠있고, 태양은 더욱 가까이 있었다. 강물은 동쪽으로 바다에 이를 것이고 해류를 타고 큰 바다에 갈 것이다. 그 큰 바다의 섬에는 自然人으로 살아가는 원주민이 있을 것이고 그곳엔 인위적인 法治는 없을 것이고 자연적으로 생활하는 곳이기에 이상향이고 유토피아라고 머리 속에 그리고 있다. 이러한 상념에서 고향 蜀(四川省)의 斷腸의 슬픔을 느끼게 하는 원숭이 소리며 松月의 月光을 감상하는데 자신은 현재 유배 가는 죄인이기에 더 머물고 유람할 수 없는 비애를 표출하고 安史의 亂이 빨리 끝나고 恩赦가 있어 自由人이 되면 大海를 건너 영주에 가서 永住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中國 內地를 九州로 더 세분화해 81分으로 나누고 中國 外地를 九州로 나뉘었으니 시인은 內地의 巫山嶺을 최고봉이라 생각하고 外地의 최고봉을 영주산으로 생각하고 영주는 큰 바다로 둘러싸인 瀛洲섬이라고 하여 “瀛海”라고 했다. 李白의 의도는 內地의 최고봉에서 발원한 물이 三峽을 지나 東流하면 바다로 흘러 들 듯

結尾句의 “孤舟”를 타고 東流하면 해류를 타고 선경인 영주에까지 이를 것이라고 하여 호방한 기개를 表出한 것이다.

瀛洲에 대해서 “저 지극히 먼 곳 (蒼梧山)의 물빛은 瀛洲이고 또한 천지의 끝이다.”<sup>17)</sup>라고 했는데 이것은 중국 內地만을 생각한 것이고 중국 外地를 도외시한 것으로 필자는 瀛洲의 環海로 보아 瀛洲산을 사방으로 감싸고 있는 큰 바다로 보고 싶다. 이백은 죄수의 몸이지만 사면되면 바다 건너 영주에 가서 仙人처럼 살고 싶다는 내심의 일면을 표출했다.

### 3) 〈贈瑕丘王少府〉

皎皎鸞鳳姿	회고 깨끗한 봉황의 자태
飄飄神仙氣	표표한 신선의 기운 일어
梅生亦何事	梅福은 무슨 일로 속세에 와서
來作南昌尉	이곳 南昌의 縣尉가 되었는지
淸風佐鳴琴	淸風에 그대의 거문고소리 들려
寂寞道爲貴	적막한 기풍은 老莊의 道를 귀히 여겨
一見過所聞	한번 만나면 그대의 견식을 들을 텐데
操持難與群	절조 지켜 나는 군중과 함께하기 어려워
毫揮魯邑訟	붓을 휘둘러 魯나라의 소송을 재판해
目送瀛洲雲	仙境인 영주의 구름을 그대에게 보내리
我隱居釣下	저는 일반 백성과 어울려 살더라도
爾當玉石分	그대는 옥석을 분별할 수 있겠지요
無由接高論	서로 입장 달라도 만나서 高論듣고 싶어
空此仰淸芬	공연히 그대의 맑은 체취를 우러러 볼뿐

본시는 瑕丘縣의 王縣尉를 휘황 찬란히 빛나는 광채의 봉황새의 자태를 묘사하고 신선처럼 자유자재로 행동하는 신선에 비유했다. 前漢末의 梅福이라는 사람이 신선이라 불렸는데 江南 南昌의 縣尉가 된 것과 王縣尉를 비교하여 풍모와 풍취가 같다고 그는 서술했다.

17) 王暉 <唐詩古事集> 前揭書 p.533 “那極遠地方的水光是瀛海,也就是天地的盡頭”

李白은 비록 회재불우한 처지이지만 붓을 들어 시나 문장을 지으면 魯나라 지역에 사는 訟事中人 사람들도 感服하여 해결할 정도이지만 好機가 오지 않음을 한탄했다. 仙風道骨인 시인과 王縣尉가 직접 만나서 高談峻論을 펼치고 싶고 고급 관직도 잠시뿐이고 老子와 莊子의 道를 터득하고 이행할 가치가 있으니 피차 인생관과 세계관이 같다고 상상했다.

비리에 물들지 않고 선경을 동경하고 玉石을 가리며 절조 있는 王縣尉이기에李白은 궁극적인 목표는 속세를 버리고 선계인 영주로 함께 가서 自然人으로 돌아가고 싶은 의지의 표명이다.

4) 〈金陵〉三首其二

地擁陵勢金	땅은 금릉을 에워싸듯 산복에 뻗혀
城迴江水流	금릉 시가지를 감싸고 장강이 흐른다
當時百萬戶	옛 東晉때는 백만 호의 대도시였고
夾道起朱樓	길을 끼고 붉은색의 높은 궁전 즐비했네
亡國生春草	패망하니 황폐해 봄철에 잡초만 무성해
離宮沒古丘	王宮도 다 매몰돼 옛 무덤이 되었네
空餘後湖月	공연히 옛 그대로인 건 後湖의 月光뿐
波上對瀛洲	큰 물결 영주를 향하여 일렁이고 있네

尾聯의 “瀛洲”를 日本 早稻田大 大野實之助는 《李太白詩全解》에서 “江湖”로 쓰고 있는데 필자는 安旗本의 瀛洲를 따랐다.<sup>18)</sup> 더 신비롭고 환상적이기 때문이다.

金陵은 지금의 南京이며 “金陵舊都”라고 하며 晉의 元帝가 이곳에서 卽位하니 長安처럼 帝都가 되었는데 鍾山과 石頭山이 용과 호랑이처럼 서있고 양자강이 관통하고 있다. 至德 元載에李白은 약 3년간의 翰林學士의 翰林院생활을 마감하고 이곳에 와서 〈金陵〉三首를 지어 永住하고 싶어할 정도로 명승지이다.

李白은 三國時代 吳나라 이래로 六朝時代(東吳, 晉, 宋, 齊, 梁, 陳)를 통해 首都인 金陵의 황제의 위력과 즐비한 궁전누각을 연상하며 역사의 영고성쇠를 읊었다. 인위적인 궁전누각은 잠시 뿐이고 천연적인 장강의 흐름을 유구하다고 대비시켰

18) 安旗 《李太白全集編年注釋》, 前掲書, p.793

고, 강물이 동으로 흘러 바다에 이르고 물결 따라 月光도 瀛洲에까지 흐른다고 하여 明月을 자주 읊어 달의 시인이기도 한 李白의 마음도 仙界로 가는 것 같다.

後湖의 달빛이나 강물은 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의연한데 호화로운 궁전이나 대도시의 수백만 인구나 저택들은 지금은 볼 수 없다. 천연적인 대자연의 변함 없는 모습과 큰 파도 넘어 신선세계인 영주를 천연적인 理想郷으로 그리고 있다.

李白은 고향인 蜀(四川省)에 가기보다는 瀛洲에 가서 일생을 마치고 싶어 했다.

5) 〈夢遊天姥吟留別〉

海客談瀛洲  
 煙濤微茫信難求  
 越人語天姥  
 雲霓明滅或可覩  
 天姥連天向天橫  
 勢拔五嶽掩赤城  
 天台四萬八千丈  
 對此欲倒東南傾  
 我欲因之夢吳越  
 一夜飛度鏡湖月  
 湖月照我影  
 送我至剡溪  
 謝公宿處今尚在  
 淥水瀟瀟猿啼  
 腳著謝公屐  
 身登青雲梯  
 半壁見海日  
 空中聞天  
 千萬轉路不定  
 迷花倚石忽已暝  
 熊咆龍吟殷泉  
 慄深林兮欲雨

바다 나그네 영주에 대해서 말해도  
 안개긴 물결 아득해 실체를 찾기 어려워  
 越나라 사람들 天姥山을 자주 언급하는 곳  
 구름과 무지개 명멸해도 간혹 볼 수 있어  
 산은 높아 하늘에 넓게 횡으로 연립해  
 산세는 오악처럼 우뚝해 적성산을 감싸네  
 천태산은 높이가 사만 팔천길이나 되어  
 천로산은 이 산에 대해 동남쪽으로 기울었네  
 나는 꿈에 동남의 吳越땅에서 노닐려고 했네  
 어젯밤 꿈속에 달이 날아와 경호를 비쳤고  
 호수의 달은 나의 모습을 흰히 비추더니  
 드디어 나를 섬계에 바로 이르게 했네  
 謝靈運이 묵었던 흔적이 지금도 남아  
 푸른 물결 맑은 원숭이 울음소리 처량해  
 謝公이 신었던 나막신을 나도 신고서  
 산상의 구름사다리 타고 하늘에 올랐네  
 새벽녘엔 벽 위에서 동해의 일출을 보고  
 공중에서 하늘의 닭소리를 들었네  
 수많은 바위 무수히 변화해 길이 없고  
 들 틈의 꽃들은 황홀해 홀연히 저녁이 되어  
 곰의 포효 용의 울음 石泉水의 소리 조화롭네  
 깊은 숲속 무섭고 먹장구름은 비가 내릴 듯

水澹澹兮生煙	흐르는 물 암석에서 흘날려 아지랑이 된다
列缺霹靂丘崩	번개치니 산봉우리 무너질 것 같고
洞天石扇然中開	천등소리에 동굴 문이 활짝 열렸네
靑冥不見底	동굴 속은 검 퍼텃해 바깥은 볼 수 없어
日月照金銀臺	해와 달이 금은의 누대를 밝게 비추고 있네
竟爲衣兮風爲馬	무지개를 옷으로 바람을 말로 삼아 왕래해
雲之君兮紛紛而下來	구름이 그대를 여러 차례 내려오게 했다
虎鼓兮驚迴車	호랑이는 거문고를 타고 난새는 수레를 물고
仙之人兮列與麻	선인들은 도열하니 삼마처럼 정연했다.
忽魂悸以魄動	그 광경에 나의 마음과 혼백도 동요하고
恍驚起而長嗟	흐릿하게 놀라 우두커니 서서 장탄식 했네
惟覺時之枕席	꿈에서 깨니 베개와 잠자리는 그대로인데
失向來之煙霞	산중에서 본 광경은 이미 사라져 환상이었네
世開行樂亦如此	속세의 행락도 꿈속의 모습과 같지 않은지
古來萬事東流水	예부터 지금까지 일들 동으로 흐르는 물 같아
別君去兮何時還	그대가 가겠다면 언제 다시 돌아 올 수 있는지
且訪白鹿靑崖間	또 백록을 푸른 언덕에 한가로이 방목해
須行卽騎訪名山	백록을 타고서 천하의 명산가고 싶네
安能眉折腰事權貴	내 어찌 얼굴 꾸며 허리 굽혀 권세에 아부하리
使我不得開心顏	속세 버리고 선인처럼 사는 것이 내 심경이네

비록 시제에서 天姥라고 했지만 내용상에서는 瀛洲가 주이고 天姥는 從이다. 天姥山은 실제 존재하지만 瀛洲는 신선세계로 간주되어 海客과 면담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선경이니 보통사람은 짐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시는 李白이 夜郎으로 귀양살이를 가게 되자 과거 長安의 궁중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天姥山의 꿈을 끌어와 비유한 것이다. 하룻밤에 그가 꿈을 꾸고서 기록한 것이고, 꿈속의 仙境은 詩人의 의중을 이해하는 관건이다. 오늘날 일반적인 견해로는 夢中仙景은 광명의 상징, 암흑현실의 대립상황이고 시인의 理想郷이다. 시인이 흠모한 謝靈運(385~433)은 南朝 宋代의 山水文學의 大家로 학문에 흥취를 느껴 관직에 연연하지 않고 名山을 유람했던 그의 인격을 흠모했다. 그가 직접 만든 나막신을 신고서 天姥山을 등산했었는데 李白도 것처럼 나막신을 신고서 등반했

다. 산은 황홀경으로 변화무쌍해 예측할 수 없는 세계였다. 눈앞에 쾌청한 날씨로 기화요초와 이상야릇한 물상이 보이더니 홀연히 검은 구름은 하늘을 뒤덮고 암흑 천지를 만들어 비를 퍼부을 듯했다. 그래서 시인의 마음엔 이 산과 비견할 高山이 없다고 생각해 경외감을 느꼈다. 경각에 꿈이 포효하고 용이 길게 우는데 이 강력한 소리는 岩石에서 흘러내린 물소리와 한 데 어울려 山川을 진동시키지만 반면 조화롭기도 했다. 황홀지경에서 꿈을 깨고 보니 모두가 一場大夢(한바탕의 큰 꿈)이었고 인생살이도 꿈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견해는 시에서 묘사한 仙國인 瀛洲의 경치가 휘황찬란하고 독자의 심금을 울려 꼭 가보고 싶게 하는 곳이다. 天姥山은 내륙의 명산이고, 해상의 仙山인 瀛洲山의 勝境地를 대비시켰고, 白鹿은 천년동안 산다는 상상의 동물로 유선자나 은둔자들이 길들여 타는 전설의 흰 사슴을 말한다고 하겠다. 취후에야 “別君去兮何時還”이라는 句에 와서야 留別의 뜻을 보이며 그대가 가는 곳은 白鹿이 방목하는 평화로운 곳이라고 암시하고 있다.

“海客” 바다 나그네, 표류자 혹은 뱃사람들은 東海에 仙國인 영주가 있으니 仙人들이 사는 仙境이고 白鹿을 타고 行樂을 즐기는 곳이니 國都 長安에서 쫓겨난 政治의 실패자인 李白에게 부합되는 곳이라 추천했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李白은 瀛洲의 仙境을 인정하지만 강경한 어조와 감정으로 분명히 비난했다. 즉, 마지막 귀에서 “내 어찌 좋은 안색으로 허리 굽혀 권세자와 부귀공명자에게 아부하며 나의 초심을 버린 안색을 취할 수 있는가” 라고 결연한 태도를 보였으니 모순의 조화라 하겠다 李白의 七言古詩의 명편이라 하겠다.

李白은 자생하는 각종 기화요초인 不老草를 먹고 白鹿이 천년동안 산다는 瀛洲에 가서 백록과 함께 장생하기를 기원하고 있다.

6) <瑩禪師房觀山海圖>

眞僧閉精宇學德  
滅跡舍達觀  
列嶂圖雪山  
攢峰入霄漢  
丹崖森在目  
淸書疑卷幔

學德이 높은 승려가 寺院을 닫아걸고  
속세를 버리고 달관의 경지에 이르렀네  
방안에 구름과 산을 묘사하고 병렬해  
봉우리는 天上의 天河가운데 우뚝 서  
빨간 언덕엔 무성한 나무가 곱게 보여  
푸르러 마치 그림휘장을 펼쳐놓은 듯

蓬壺來幹窓  
瀛海入几案  
煙爭噴薄  
島嶼相凌亂  
征帆飄空中  
瀑水灑天半  
崢嶸若可陟  
想象徒盈嘆  
杳與真心冥  
逐諸靜者  
如登赤城裏  
揚步滄洲畔  
卽事能娛人  
從得消散

봉래산은 처마 끝 창가에 있고  
영주의 바다는 책상 옆에 있네  
연기와 大波는 경쟁하듯 힘차게 솟아  
섬들은 그것위에 서 있거나 의지해 있다  
해상엔 범선이 나는 듯 가고 있어  
폭포수는 하늘 가운데서 퍼 붓네  
산은 높아도 걸어 오를 수 있지만  
그림이라고 상상하니 그저 탄식 뿐  
묘연해도 보는 자의 진심과 부합한다면  
고요한 마음에 사물로 알맞네  
구름을 보면 赤城山에 오른 듯  
滄洲의 물가를 걷고 있다네  
나는 그림과 한마음이 되어 즐겨  
이에 속세에 근심을 털어버렸네

李白은 高僧인 瑩禪師의 방에서 山海圖를 보고서 神山인 蓬萊山과 仙境인 瀛洲의 바다를 보았고, 이 三神山 외에도 속세의 우수를 해소시킬 수 있는 신선세계인 滄洲가 있음을 알게 된다. 李白은 명절을 맞을 때 더욱 고독하고 처참한 심경이었다. 錦衣還鄉하지 못하고 방랑생활하는 신세타령과 회재불우의 심경을 토로하게 되면 신선세계를 읊어 장래를 기약하기도 했다.

李白의 〈九日登山〉의 五言古詩에서 重陽節을 맞아 높은 산에 올라 국화주를 마시 액땀하여 장수하기를 원하는 행사에 참석해 읊었다. “예부터 높은 산에 오르는 사람, 지금은 그다지 많지 않다. 창주에 가기로 일찍이 생각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그 희망은 내일을 기약할 뿐. 연산처럼 밀려오는 파도에 놀라워도 여러 번 풍파를 넘어 꼭 滄洲에 도착하리<sup>19)</sup>”라고 읊어 滄洲를 三神山과 동격으로 쓰거나 三神山보다 작은 별천지를 상상했다.

李白은 못사람들처럼 단순히 전통행사에 다른 의견을 갖는 사람과 의기투합해 번잡한 속세를 버리고 신선세계 滄洲에 못 갔음을 한탄하고, 시인은 험한 바닷길을 건너 瀛洲에 꼭 가고 싶다는 뜻을 보였다.

19) 李白〈九日登山〉：“古來登高人，今復幾人在。滄洲違宿諾，杳杳出溟海。”



### Ⅲ. 結 論

李白은 약 3년간 宮廷시인으로 〈宮中行樂〉 등을 지어 玄宗의 신임을 얻었고, 玄宗이 그를 승진시키려 했으나 楊貴妃와 高力士 그리고 翰林院 學士들이 반대하고 참언, 비방했다. 끝내 李白은 自意半 他意半으로 長安을 떠나 다시 在野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처럼 간난 신고의 세상살이에 그는 理想世界인 별천지를 더 선망하게 되었다. 이에 이백은 비리가 없는 光明의 사회, 즉 신선 세계를 더 동경하게 되었는데 특히 瀛洲에 심취했다. 李白은 秦代(B.C221-B.C206)의 始皇帝가 方士 徐市을 불러초를 캐러 영주에 파견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각종 서적과 문집 등을 통해서 알았을 것이다. 또한 在野시기에 각처를 방랑하여 특히 沿海地區인 魯(山東一帶)의 지식인이나 “海客”에게 많이 들었을 것이다. 海客은 바다상인, 뱃사공, 표류자 혹은 朝鮮半島 三國時代의 高句麗, 百濟, 新羅와 倭(日本)의 뱃사공, 학자, 遺唐 유학생이나 외교사절단이라고 볼 수 있다.

崔溥가 中國 浙江省 寧波府에 표류한 것은 潮流때문이며 6개월 만에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은 瀛洲의 徐市에 대한 전설과 不老仙藥의 명산지임을 확인하는 “耽羅詩” 등을 漢詩로 作詩하며 漢字를 써서 遭難者임을 筆談으로 의사소통을 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만약에 무식한 어부라면 귀환이 영영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李白은 海客의 동해 瀛洲에 대한 체험담과 설화, 미묘한 신화, 전설과 기묘한 환상을 유려한 문학적 수사 등으로 낭만주의 수법을 접목시키고 결합하여 우리들에게 무한하고 광활한 몽환과 환상의 경계와 장대하고 화려한 형상의 영역을 펼쳐보였다. 시인이 충분히 표현하려고 한 것은 낭만주의 정신과 영주에 대한 애착과 동경, 광명을 향해 가려는 민주적 성향과 봉건사회의 황제를 위시한 집권세력에 대한 증오와 반항을 암암리에 노출시키고 각성을 촉구했다. 또한 始皇帝의 열렬한 지지 하에 徐市등 수 천명이 不老草를 캐러 瀛洲에 간 역사적 사실을 상기시켰다.

秦 始皇帝의 不老草에 대한 염원과 徐市의 귀환에 대해 “徐市이 제주도를 찾아왔다는 전설 가운데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서쪽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남긴 내용인데, 그럼 그들이 떠난 중국본토로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나 사실은 중국이 아닌 일본으로 방향을 돌려 떠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sup>20)</sup> 그래서 徐市에 대한 전설이 제주에서 전승되어 詩人墨客의 詩文이 많이 남아 있다. 徐市의 船團은 瀛洲를 경유하고 기착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제주에서 전설화 되었다. 徐市이 인술한 童男童女들은 日本(倭)에 갔다면 隱姓하거나 變姓하였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을 추적하려는 秦 始皇帝의 추종자나 측근들에게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게 된다.

徐市의 大船團이 제주를 경유해 瀛洲는 濟州島와 한라산을 지칭하게 되어 中國의 신화와 희미한 역사가 제주에서 현실화 되어 우리 선인들이 별칭으로 쓰는 계기가 되었고 李白이 신선 세계를 推仰하는 정신도 瀛洲文化에 스며 들었다고 하겠다.

李白의 自由와 理想에 대한 염원은 “徐市過此 혹은 徐市過之”의 瀛洲에서 전설이 일부 現實化되어 濟州島 혹은 漢拏山의 별칭이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徐市이 불로초를 캐러 온 瀛洲(한라산)에는 自古로 植物의 寶庫로 濟州島의 주위 환경은 시인의 혼백과 함께 감돌고 영험한 그의 靈魂은 山氣化해 瀛洲(제주도)의 각 지역과 산봉우리마다 精氣를 내뿜어, 기화요초의 자양분이 되고 島民이 和平을 기리는 상징이라고 하겠다.

총괄하건데, 謫仙人 즉 李白은 신선세계에서 지상에 유배되어 온 詩仙이고, 酒仙은 고난과 질고의 생활에서 一面 飲酒하고 一面 作詩했는데 특히 徐市과 瀛洲를 읊어 자위하면서 一生을 理想세계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보냈다. 그래서 徐市과 瀛洲에 관한 시를 통해 瀛洲의 지식인에 의해 詩仙은 “仙人”이 되어 제주에 그의 正義 社會의 구현에 대한 열망과 정신이 깃들어 정신문화가 면면히 이어지고 각종 문집이나 瀛洲十景 등에서 浪漫시인 李白의 瀛洲에 대한 낭만성이 스며 있다고 하겠다.

20) 洪淳晩 <徐福集團과 濟州島> 前掲書 p.68-69

(Abstracts)

Ying Zhou in Li Bo's Poetry

Yi Boo Kwak

Cheju National University

According to the legend, Li Bo (701~762 AD) was born in the dream in which the Gold Star is put in his mother's breast. Li Bo studied hard in his hometown, Shu, now known as Si-Chuan, and left his home at the age of 25 to become a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 whose duty is to assist an emperor. He actually became a court poet and served Xian-Zong, the Great (652~762 AD, reigned 712~756 AD) for about three years in Tang dynasty. Except for this period, however, he lived a needy life as a poet out of office for about 33 years, and he finally died while staying away from home.

As a leading romantic poet in the history of Chinese literature, he was always suffering from social absurdities and also from failing to have his political ambition. This led him to long for Utopia, an ideal world, standing aloof from the real world of suppression and shackles.

For him, it was Ying Zhou to which 3000 virgin boys and another 3000 maidens were sent by Shi Huang, the Great (259~210 BC, reigned 247~210 BC) to get a herb of eternal youth. Today's Jeju, originally the Kingdom of Tamla (2337 BC~938 AD), was previously called Ying Zhou and Im Mo. The Kingdom of Tamla surrendered to Koryo in 1257, or in the 21st year of the King of Chongreal, leading to change its name to Jeju. Following this historical background, however, even today, Jeju is informally called Ying Zhou or Tamla. A representative example of this is in the name of Halla mountain, which is also called Ying Zhou mountain.

In this paper, it was pointed out that Li Bo was a poet of literary talent but was not employed as a higher government official and ended his life as a Bohemian poet wandering all over the country in China. This paper includes some appreciation

of Li Bo's poems on Jeju, where he described as a realm of freedom and Xu-Fu was sent to dig a herb of eternal youth. By doing so, this paper was concerned with exploring Li Bo's spiritual culture remained in Jeju.

Key words

Herb of eternal youth : As a medical herb considered to be produced in Ying Zhou

known as a sacred land, the legend says that one is not getting old and can live for a long time if one takes it.

Ying Zhou: This is a Chinese pronunciation of Yeoung Ju, which refers to today's Jeju in Korea.